

모체(Moche)문화의 에로틱 토우

유화열(수원대)*

- I. 들어가는 글
- II. 모체문화
- III. 모체의 조각 토기: 에로틱 토우
- IV.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보통 ‘에로틱하다’는 말은 야한 영화를 보고 나와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페루 모체(Moche) 문화의 조각 토기 중 하나인 에로틱 토우는 전혀 야하다거나, 흥분의 수위를 노출시키고 있지 않다. 에로틱이란 말 그대로 성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만, 지극히 인간적이어야 할 사랑이나 욕정보다는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다¹⁾. 그렇다면 이토록 노골적이고 다양한 체위로 나타나는 성관계의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표정에서 에로틱함이 묻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상반된 포즈와 표정에서 모체의 에로틱 토우가 갖는 독특한 조형성이 발산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포즈와

* Hwa-Yeol You(Suwon University, youhw@hanmail.net) “Erotic Clay Figures in Peruvian Moche Culture.”

1) 이 점에 대해 페루의 고고학자 라파엘 라르코(Larco, 1966)와 쾨하트(Kauffmann Doig, 1976, 재인용)는 여성들은 성교 내내 이 행위를 즐기지도 않으며 남성과는 성교 파트너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냉담하며 오히려 서로를 배척하는 것으로도 보인다(Justo 2000, 19).

표정의 관계'가 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페루는 안데스문화의 본거지인데, 잘 알려진 잉카 문명 외에도 잉카 이전의 프레 잉카 문명이 발전했었다. '모체(Moche)' 혹은 '모치카(Mochica)'라고 불리는 이 문화는 프레 잉카 문명 중의 하나였고 페루 북서부지방에 위치한 강 주변에서 1세기에서 6세기를 정점으로 발달하였다. 안데스문화를 굳이 지형적으로 분류하자면 모체 문명은 북부해안지역문화에 속한다. 남부해안지역문화로는 나스카(Nasca, AD 100-800)가 있는데, 이들 두 문화는 다른 주변 문화들과 함께 안데스 문화의 척추 역할을 할 정도로 문화의 융성기를 함께 이루어냈다. 그러면서도 모체와 나스카 간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조형적 표현의 다른 특징으로 확인된다. 즉 모체문화는 사실적 형태를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력한 반면에, 나스카는 사실적 형태를 단순화하고 재구성하여 다양한 색감으로 활용한 디자인에 주력했다²⁾. 이러한 상이한 표현방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성격과 이미지를 가진 특징적인 각각의 조형물을 남기게 되었다. 그밖에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었다. 북부해안지역에 위치한 모체 문화는 모체 이전의 비쿠스³⁾, 비루⁴⁾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적 표현에 적극적이었고 다양한 성적 테마가 조각적 기법으로 재현되었

-
- 2) 나스카가 여자의 성기를 가느다란 음각선으로 은은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한데 비해, 모체는 여자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가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3) 비쿠스(Vicus)문화는 직접적으로 모체 도자기의 조각적 표현과 연결된다. 즉 모체에 술에서 일궈낸 수준 높은 조각적 표현은 비쿠스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쿠스 문화는 이전 문화인 쿠피니스케와 차빈의 권위적인 표현으로부터 벗어나 형태를 변형시키고 양식화한 표현이었다. 이는 인간의 측면 얼굴을 아주 세련되게 양식화한 표현에서 나타난다. 일직선으로 연결된 콧날과 꼭 다문 입의 실루엣은 둥근 항아리 표면에서 움푹 들어가 평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입체적인 강조 효과가 있다. 이목구비 중에서 코의 표현은 사실적이지만 사각형 안에 들어 간 도드라진 원형의 눈과 곡선의 굴곡이 심하게 변형된 귀, 단순하게 음각선으로 처리된 측면의 입에서 형태의 단순화, 기학적 표현이 느껴진다. 특히 머리의 표현은 규칙적인 간격의 반원으로 표현된다. 측면 얼굴은 등자형(사진 1, 2와 같은 주구형태) 주둥이의 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다(Stierlin 1983, 51-78).
 - 4) 비루(Virú)문화는 레체(Leche)와 산타(Santa)계곡 사이에서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 후 500년 경에 발전하였다. 그러나 비루문화의 발원지보다 남쪽에 위치한 모체와 치카마 계곡에서 발전한 모체 문화에 귀속된다. 그러나 비루를 정복한 모체 조각 안에는 비루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성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사진 4).

다. 그렇지만 남부해안지역에 위치한 나스카는 그 이전의 파라카스⁵⁾ 문화의 영향을 받아 직물에 나타난 패턴이 도자기에도 적용되었다. 이것은 나스카의 성적 표현이 최대한 단순하게 생략한 은유적 표현으로 다가간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페루의 고고학박물관, 라파엘 라르코 박물관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박물관에 전시된 안데스 문명기 미술은 도자기로 집약되고 있다. 이들은 신전이나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 모체의 조각 토기는 실용적 용도보다는 종교적·정신적·의식적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명확하게 인지되는 사실적인 표현은 일명, ‘그림 사전’ 또는 ‘조형 언어’로 통하고 있어, 모체 사회와 종교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학술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도자기가 갖는 본질적인 성질, 즉 깨지기는 쉽지만 몇 천 년이 지나도 결코 녹슬거나 사라지지 않는 재료적 성격 때문에 깨지면 또 만들어 대체하여 그 시간대의 감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각도에서 모체의 에로틱 토우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모체 사회의 성문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안데스 문화권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모체 도자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손꼽히는 에로틱 토우를 다루고자 한다. 모체의 에로틱 토우에 나타난 다양한 테마를 라파엘의 연구를 토대로 분류하고, 아울러 쟁하드가 분류한 8가지의 다양한 체위를 분석함으로써 이것을 제작한 도공들이 중요시 여겼던 표현가치를 분석하여 ‘모체의 에로틱 토우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조형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의 방법은 테마별, 체위별로 분류된 각각의 토우들이 갖는 공통적 범주 안에서 이것을 제작한 도공들 간의 차이점(제작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도공들의 점토 표현력, 즉 질감, 형태, 세부 묘사 등에 이르는 다양한 표현 요소를 가리킴)을 찾아내는 것이다. 에로틱 토우는 몰드기법이 아닌 모델링기법과 타렴기법으로 성형이 이루어지다보니, 자연스레 인체의 비례, 부피감,

5) 중앙안데스문명에서 파라카스(Paracas)의 직물은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문화는 기원전 550년부터 서기 100년까지 남부해안지역에서 화려하게 융성했으며, 이후 나스카 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동적인 자세, 세부묘사의 과정에서 도공의 조각적 표현능력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실은 도공들 간의 표현적 차이점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공통적 범주가 개개의 도공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II. 모체문화



지도1) 모체문화
(출처: www.anthro.umontreal.ca)

모체 문명이 위치한 페루의 북서부 지역은 적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인공수로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을 발전시켰다. 이 중에서도 치카마 지방에 만들어 놓은 아스코페(Ascope)수로와 콤브레(Cumbre) 운하는 모체의 기술력발달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인공적인 수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은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 물을 공급하고 높은 수확을 올리는 방식을 발달시켰으며 이를 통한 생산성 확대는 모체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모체의 정치, 경제, 사회상을 기록한 사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결국엔 고

고학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토대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무덤과 가옥 등에 관한 연구가 이들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에 주로 이용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무덤에 나타나는 장식이나 부장품 등의 차별화는 정치, 사회적

인 권력과 계급의 차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Lumbreras 2000, 15-19). 시판(Sipán), 로마 네그라(Loma Negra), 라 미나(La Mina), 산 호세 데 모로(San José de Moro) 등지(지도 1)에서 발견된 금과 구리로 장식된 화려한 무덤들을 통해서 이들의 주인이 최상위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또한 가옥에 있어서도 중앙신전구역 주변에 위치한 발달된 가옥들은 상류계급의 것이고, 중심부 주변으로 잘 정비된 지역에서는 그 다음 계층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의 외곽과 언덕 아래 부분과 같은 곳에 평민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쉽게 단정하기 힘들고 차후의 연구를 통한 다양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종교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을 숭배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다른 아메리카 대륙의 문화와 유사한 제정일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지도층에 놓인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점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다(Castillo 2001, 161). 안데스 문명권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꼽히는 모든 성스러운 장소, 의미, 사람, 물건 등의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인 우아카(Huaca)의 개념⁶⁾이 이때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체의 언어에 존재하는 마초엑(Machoc)이라는 단어가 그것인데(Rostworowski 2000, 181), 안데스 문명권 중에서 그나마 사료를 통해 종교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잉카시대의 종교적인 특징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다.

7세기 경에 이르러 남부지방에 위치한 와리(Wari)문화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모체의 도시들은 발전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인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국가가 아니었으므로 각 도시별 쇠퇴 시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원후 750년경까지 문화적인 잔재들이 꾸준히 유지되었던 경우도 있었다(Castillo 2001, 161).

6) 우아카는 우리문화에 깊숙이 박혀있는 풍수지리설, 부적, 무당들의 곳, 신령님과도 비슷하다. 어떤 물건이나 성스러운 장소에서 현현된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데, 그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산봉우리, 산꼭대기, 이상하게 생긴 바위, 샘, 수원지와 교량 등은 모두 우아카가 될 수 있다. 또한 조상들의 미라가 모여 있는 동굴도 우아카가 될 수 있다. 각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우아카도 있었다. 돌을 다듬은 작은 조각상들이 땅의 다산을 돌봐주는 것으로 믿어졌다.

Ⅲ. 모체의 조각 토기: 에로틱 토우

모체 문화는 페루의 북부 해안가, 피우라(Piura)와 우아르메이(Huarmey) (지도 1)사이에서 고도로 발전된 문화·예술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체 문화가 이 지역에서 처음 일어난 문명은 아니었다. 이미 이전에 차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쿠피니스케7)의 등자형 주구8)가 달린 토기를 비롯하여, 비쿠스, 비루 문화의 휴머니즘이 가미된 조각 토기가 제작되었던 수준 높은 지역이었다. 이렇듯 모체 문화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조각 토기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문화들이 남겨놓은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체의 점토예술은 일반적으로 조각 토기와 회화 토기로 구분되고, 조각 토기는 각각의 특징적인 형태에 따라 표 1)에서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표 1) 모체 조각의 3가지 유형

유형	특징적인 형태	해당사진
1	초상 토기 : 인물을 사실 그대로 묘사한 자연주의 스타일의 조각 토기이다. 오늘날 전세계의 초상 토기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꼽힐 정도로 수많은 걸작을 내놓았다.	(사진 1)
2	인간·동물, 인간·식물 조각 : 신화적, 종교적인 개념이 가미되어 형태의 변형 또는 합체로 나타나는 조각이다.	(사진 2)
3	에로틱 토우 : 성적인 장면을 묘사한 조각 토기로서 선명한 형태로 드러나는 사실적인 성적묘사는 차빈문화9)에서는 보이지 않는 표현이지만, 비쿠스 조각토기에서는 빈번히 등장하는 소재였다.	(사진 3-21)

7) 쿠피니스케(Cupinisque) 문화는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에 중앙안데스 지역 최초의 도자기 문화를 보여주는 데, 이후 북부지역 문화의 경향으로 남게 된다. 쿠피니스케 도자기의 외형은 등자형 주구가 달리고 검은색 또는 붉은색의 연마한 표면이다. 몸통에 시문된 문양은 주로 하왕, 독수리, 뱀이고 여기에 인간, 과일, 참수형을 당한 머리가 함께 재현된다.

8) 등자형 주구란 도자기의 주둥이 모양이(사진 1, 2 등)와 같은 형태를 가리킨다. 아울러 등자형 주구는 안데스 도자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한다.

9) 이렇듯 차빈 문화(Chavin, 기원전 1200년경~기원전 400년경)(이 논문에 등장하는 문화들을 시기, 장소 등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임)

이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모체의 에로틱 토우는 표 1)에서 언급하는 조각토기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에로틱 토우의 얼굴표정에서 ‘초상 토기’와의 연관성이 나타난다. 초상 토기를 만든 이는 모델¹⁰⁾의 이목구비는 물론, 모델의 안면근육에 나타난 생동감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¹¹⁾ 특히 얼굴 표정에 나타난 어느 한 순간의 심리적인 것까지도 포착하여 표현할 줄 아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듯 제3자의 시선에서 모델을 정확하게 관찰·재현하고 있지만 모델의 감성적인 표현에 치중하고 있는 점이 초상 토기가 갖는 매력이다. 예를 들어 무뚝뚝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지만



사진1) 초상 토기



사진2) 인간-동물조각

입가에 희미하게 띤 미소, 정직함과 경건함으로 무장한 표정, 먼 곳을 바라보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듯한 표정, 어떤 괴로움을 안고 슬픔이 가득 찬 표정에 이르기까지 초상 토기를 통해 전해지는 모체인의 표정은 외양적인 성격

이기보다는 내성적인 성격에 가깝다. 또한 초상 토기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강건함과 무뚝뚝함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표정은 에로틱 토우의 인물들에 나타난 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늘날 페루미술에서 재현되는 인물들과도 일맥상통한다.¹²⁾

와 비교하는 이유는 이 문화 자체가 중앙 안데스 문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 안데스 문명을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연배우이면서도 잉카제국에 이르도록 3000여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화이다.

- 10) 초상 토기는 무덤에 매장된 주인의 초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지배계급이나 제사장을 묘사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 11) 동물 초상 토기 또한 모체 예술에서 인물 못지 않게 그 표정이 잘 살아나고 있다. 낙타류에 속하는 동물은 입에 무언가를 넣고 씹고 있는데, 입 근육을 따라 움직이는 코와 안면 근육에서는 생동감이 느껴진다.
- 12) 20세기 페루화단에서 토착주의운동을 이끌어 온 호세 사보갈(José Sabogal)의 인디오를 모델로 그린 그림에서도 이러한 무뚝뚝함과 경직된 표정이 발견되는 데, 이를 가리켜 미술평론가 루시 스미스(Lucie Smith)는 인디오의 외면적인 표현에 치중했다고 비평하고 있지만, 안데스 문명기 미술로부터 흐르는 인물표정을 주의깊게 의식한다

모체 조각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인간-동물, 인간-식물 조각’은 초상 토기와 달리, 인간적인 특질과 동물(또는 식물)적인 특질이 접합된 형태이다. 이러한 조형적인 예는 안데스문명권미술은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고대예술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에로틱 토우에는 이와 같은 인간-동물적인 인물상들이 재현되기보다는 인간의 형상으로 치중되고 있는 데(사진 3), 여기에서 에로틱 토우가 갖는 본질이 인간-동물 조각 토기와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안데스 미술에서 동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곧 신화적 테마로 직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¹³⁾, 이에 반해 에로틱 토우에서는 동물보다는 인간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러한 사실은 에로틱 토우가 인간생활에 바탕을 둔, 인간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 조각 토기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인간-동물 조각 토기와 에로틱 토우의 다른 점을 살펴보다보면, 대상을 바라보고 조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자연의 사실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객관적 관심으로 이는 초상 토기와 에로틱 토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식물의 인간화, 동물의 인간화처럼 사실에서 변형시키는 주관적 관심이다. 인간화한 동물형태로는 책상다리 자세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슴이 있다(사진 2). 이러한 인간-동물, 인간-식물 조각 토기에서 모체의 조각 토기가 갖는 전신상의 특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모체의 조각 토기에 영향을 준 비쿠스, 비루의 조각에는 전신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토록 다양한 동작으로 연출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중에는 전투사로 언급되는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이 무릎을 구부리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Montañés 1986, 134). 또한 몸통은 계인데, 고양이과 동물들인 펠리노¹⁴⁾의 송곳니에

면 호세 사보갈의 인디오 그림에는 안데스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조각토우의 전통을 잇고 있는 키누아(Quinua) 도예마을의 인물 표정을 살펴보면 위에서 지적하는 무표정함이 나타난다.

13) 안데스문명의 독자성이 드러나는 차빈문화의 비석에는 펠리노, 뱀과 같은 동물들이 신화적인 테마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합성시킨 합체 형태도 있다. 이렇듯 전신상에서 보여주는 유연한 동작은 에로틱 토우에 나타나는 현란한 움직임과 맞아 아있다.

그러나 모체 조각에서는 객관적 관심과 주관적 관심이 혼란스럽게 교차한다.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객관적 관심에서 재현되고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주관적 관점에서 출발한 조각물들이 비밀비재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동물로는 두꺼비가 있고 식물로는 옥수수, 감자, 유까 등이 있다. 이들은 초상 토기 만큼이나 사실적인 묘사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두꺼비는 물과 연관된 동물이다. 강가, 해안가에서 사는 이 동물은 물을 가져



사진3) 에로틱 토우

오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가끔 두꺼비의 몸에 식량이 장식된 것은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옥수수, 감자, 유까 모양의 등자형 주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식물은 오늘날에도 안데스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산되는 작물들이다. 또한 두꺼비와 마찬가지로 이들 작물은 모체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손님이기도 하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체 사회가 그들의 주요 작물들을 설화와 민담 그리고 예술 작품 속에 동시에 표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듯 외형적으로는 사실적인 표현에 입각하고 있으나 그 형태 자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모체 조각에서 객관적 관심과 주관적 관심은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에로틱 토우를 바라본다면, 에로틱 토우에 묘사된 사실성은 객관적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관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표현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이 표현한 성행위 장면이 실제의 성생활을 재현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주관적 관심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재

14) 펠리노(Felino)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들을 지칭한다. 차빈 데 완타르(Chavin de Huántar, 차빈문화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펠리노의 송곳니로부터 안데스 문화 전반에 걸쳐서 펠리노의 송곳니는 신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현은 실재를 바탕으로 한 것에는 분명할 수 있으나, 해골로 나타나는 인물이 자위를 하는 장면(사진 8)에서는 의문이 생긴다. 즉 해골이 살아있는 인간처럼 자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에로틱 토우 또한 다른 조각 토기와 같이 객관적 관심과 주관적 관심의 혼재된 상황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Ⅲ. 1. 에로틱 토우의 테마별 분류

페루에서 에로틱 토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라파엘 라르코 박물관 안에 위치한 에로틱 박물관이다. 전시 공간은 에로틱과 섹스, 성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관음증을 도와주는 영상물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지만, 그 옛날 모체에서도 관음증을 위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성교육을 시키기 위해, 아니면 여성들이 젖을 먹이는 동안 남성들의 욕구를 자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하다.¹⁵⁾

그러나 모체의 에로틱 토우가 갖는 조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체사회에 관한 연구가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나 아도베(adobe) 건축물¹⁶⁾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에로틱 토우가 왜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페루에서 에로틱 토우를 직접 발굴한 라파엘(Justo 2000)은 그의 저서 『체칸』(Checán, 체칸은 모체 언어로 ‘사랑’을 의미한다)에서 에로틱 토우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학적인 토우, 교화적인 토우, 종교적인 토우, 자연적인 토우가 있다. 해학적인 토우는 성적인 상징을 다소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실용적인 용도에 접목한 표현인데, 거대한 남성 성기 또는 여성 성기를 물을 따르는 그릇의

15) 수유기간에 성관계를 가져 임신으로 이어지게 되면,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수유기간에 성관계를 멀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6) 모체문화는 여러 개의 아도베 피라미드를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서 태양의 우아카(Huacas del Sol)와 달의 우아카가 모체 남부지역의 정치, 종교, 행정의 중심지였다고 고고학 연구에서 밝혀졌다. 태양의 우아카는 수백만 개의 아도베 벽돌로만 구축되었는데, 현재는 심하게 파손되어 높이 40m에 345m×160m의 기부만 남아있는 정도이다.

주둥이로 변형시킨 예에서 나타난다. 교화적인 토우는 섹스의 쾌락이란 쓸데없고 무의미한 것으로 표현되는데, 지나친 성행위로 인해 병이 들고 결국에는 종말에 이르는 죽음의 상징인 해골의 성행위로 재현된다. 종교적인 토우는 신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때의 신들은 남자 또는 하얌, 표범 등으로 변장해서 나타난다. 신들은 남자 인간처럼 여성들과도 성교를 나누는데, 이때에는 비옥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자연적인 사실주의 토우는 있는 그대로의 성교 장면을 재현한다. 다양한 체위에 따라 어떻게 성기가 결합되는지를, 자위행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묘사한다.

이와 같이 라파엘이 분류한 에로틱 토우의 유형 중에는 비옥함에 대한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른 학자들이 에로틱 토우가 왜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비옥함을 기원하는 또는 어떤 의식과 연관이 있는 성적 표현으로 귀결되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크리스토퍼 도난(Cristopher Donnan)과 안느 마리아(Anne María)는 에로틱 토우에 나타난 형태와 종교 의식과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 에로틱 토우의 다양한 육체적 움직임이 의식적인 내용 또는 샤머니즘 활동을 야기하는 실제 있었던 의식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Donnan 1985, 54-90). 또한 잉카의 정복 이후 페루 북부지역을 순찰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종종 남색이 강하고 음탕한 성적 의식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다(Justo 2000, 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에로틱 토우를 총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라파엘의 유형 분류를 토대로, 앞에서 살펴본 모체의 조각적 쾌거가 낳은 조형적 분위기 하에서 에로틱 토우의 조형성에 대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에로틱 토우란, 결과적으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모체만의 조각적 풍토에서 가능했던 표현이었고 여기에 북부해안지역에서 내려오는 성적 표현의 전통이 가세하여 탄생할 수 있었던 모체 특유의 조형표현이었다. 또한 안데스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동물, 인간-식물의 전신상이 에로틱 토우에는 전반적으로 재현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¹⁷⁾ 에로틱 토우가 지

17) 위에서 라파엘이 분류한 종교적인 토우에 일부 신으로 추정되는 인간-동물이 나타

향하는 바는 의식이나 신을 향한 봉헌물이 아닌, 인간의 성생활을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페루의 고고학박물관에는 모체의 다양한 조각 토기가 전시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모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회적인 활동을 담은 인물을 기록하듯이 재현한 토기들이 있다. 직공, 어부 등과 같이 한 눈에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하는 지를 재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적 재현의지는 성적인 것에도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성적인 다양한 동작들을 담아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파엘이 수집한 에로틱 토우의 테마들은 실로 다양한데, 이들을 분류해보면 표 2)와 같다.¹⁸⁾

표 2) 에로틱 토우의 다양한 테마

테마	형태	성별 ¹⁹⁾	해당사진
키스	나란히 붙어 앉은(또는 마주보는) 남녀는 키스를 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고 여자는 남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음	여성, 남성	*
성행위	III. - 2. 겐하드(P.H. Gebhard)에 의한 8가지 체위 참고 (표 3)	여성, 남성	(사진3, 4)
임신과 출산	만삭의 배를 안고 있는 임신부, 산파들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고 있는 산모	여성	(사진 5, 6)
구강성교	남자는 서있고 여자는 앉은 채로 구강성교함	남성, 여성	(사진 7)
수음	남자 혼자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음.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해골 남자가 수음을 함	남성, 여성	(사진 8)
비역	앞에 있는 남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뒤에 있는 남자는 앞남자의 허리를 붙잡고 항문에 삽입함	남성	*

나기도 하지만 이는 에로틱 토우의 전체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만큼 에로틱 토우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인간으로 집약되고 있다.

18) 참고로 이 논문에 실린 사진들은 페루의 라파엘 라르코 박물관에서 촬영한 것임을 밝히며, 해당사진이 없는 경우는(*로 표기) 이 박물관에서 구할 수 없었던 형태에 해당한다.

19) 성별을 표기한 순서는 두 성 중에서 더 부각되는 성을 먼저 표기하였다. 즉 사진 7의 구강성교에서 남자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사진 9의 나체는 남성보다 여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테마	형태	성별	해당사진
나체	어떠한 성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나체 남자는 전쟁 포로인 경우가 있고, 여자 나체의 경우는 등자형 주구의 한쪽 면이 여자의 성기로 삽입된 장면으로 나타남	여성, 남성	(사진 9)
남근의 과장된 표현	몸뚱이만한 남근을 드러내놓고 있는 남자, 남근의 조형화, 실용기의 손잡이로 접목된 남근, 남근 형태 자체가 인물로 접목됨	남성	(사진 10)
성행위로 인한 고통	나체의 남자가 나무에 묶여있고 남자의 눈을 새가 쪼아 먹고 있음	남성	*
아픈 자의 성기	온몸에 종기가 난 남자의 얼굴 표정은 울상을 짓고 있거나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손은 종기 부분을 긁고 있으며, 남근은 처져있음	남성	(사진 11)
동물의 성교	펠리노, 두꺼비, 쥐, 야마, 젓소의 성행위를 묘사함	암컷, 수컷	(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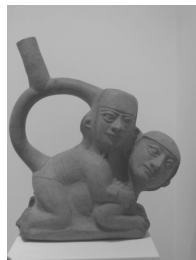


사진 4) 성행위



사진 5)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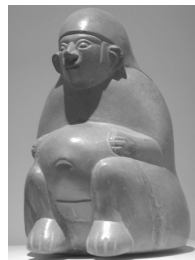


사진 6) 임신부



사진 7) 구강성교



사진 8) 수음



사진 9) 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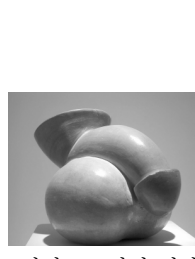


사진 10) 남성 성기



사진 11) 아픈 자의 성기



사진12) 동물의 성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로틱 토우에서 다뤄지는 테마는 여성과 남성 애무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임신과 출산, 다양한 성행위의 자세, 동물의 성교에 이르기까지 성에 관한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에로틱 토우의 외양은 단순히 성적 묘사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싶지만, 실상은 성이 빚어낸 생명의 잉태, 성생활을 통한 지극히 인간적인 단면을 실감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라는 인간적 범위를 뛰어넘어 동물에게까지 접근하고 있음에서 에로틱 토우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이미 III장에서 언급했듯이, 에로틱 토우에 등장하는 동물은 동물 자체의 형태로 재현될 뿐이지, 다른 인간-동물 조각 토기의 경우처럼 인간적인 외모와 섞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교의 자세만큼은 다분히 인간적인 성교자세를 취하고 있다.²⁰⁾

먼저 에로틱 토우의 테마에 나타난 각각의 형태를 알아본 후에, 에로틱 토우가 갖는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키스: 에로틱 토우에서 재현되는 키스 장면은 애무를 동반한 형태로 나타나곤 하는 데, 이때 남녀의 혀는 마치 동그란 원반처럼 묘사되어 각자의 혀가 하나로 붙어있는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키스를 묘사한 에로틱 토우에서는 남녀의 형태를 각각 분리시키지 않고(성행위, 구강성교에서는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음) 한 덩어리로 붙여 만든 후에 남녀의 몸을 부조기법으로 희미하게 구분할 정도이다. 이 점에서 모체인들은 키스라는 행위를 떨어져있는 두 개체(여성과 남성)를 하나로 일치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행위: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테마는 수집된 에로틱 토우 중에서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테마에 속한다. III. 2.에서 접하드에 의한 체위별 분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겠지만, 무엇보다

20) 이 점 또한 주관적 관심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체위의 실감나는 묘사에서 에로틱 토우가 사실성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어떤 성에도 치우치지 않는 성의 균형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남성만 모델로 하여 제작한 초상 토기와 분명히 대별되는 점이다. 이렇듯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토우들은 어느 성에도 집약되지 않도록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묘사력으로 제작되었다(사진 3, 4).

임신과 출산: 여자들만이 독자적으로 등장한 테마에는 임신과 출산이 있다. 고대 사회에서 임신에 대한 희망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잉카 인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는 여자는 죄로 인해 부정하다고 간주했다고 한다(Justo 2000, 52). 사진 5를 볼 것 같으면, 두 명의 산파가 출산을 돕고 있는데 한명은 임신부의 앞에서 아기를 받고 있고 다른 한명은 임신부의 뒤에 앉아 아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양손으로 아랫배를 지긋이 눌러주고 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재현한 출산 장면에서 당시의 산모들이 이런 자세로 출산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각적으로 기록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또한 만삭의 임신부를 묘사한 토우는 대개가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사진 6), 특이하게도 모체의 조각 토기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등자형주구가 달려있지 않다. 또한 토기 위에 올려지지 않고 독자적인 형태로 조각된 점에서 임신부 토우의 용도가 다른 토우가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신과 출산을 다룬 토우들은 수집된 전체 양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테마에서는 다른 테마들에 비해 조각적인 완성도가 높으며²¹⁾ 특히, 다른 토우에 비해 숙련된 조각솜씨가 드러난다. 이 점에서 임신과 출산을 다룬 도공들은 에로틱 토우를 제작하는 도공들 중에서 조각적 재능을 입증 받은 특정된 도공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강성교: 구강성교(口腔性交)는 에로틱 토우에서 풍부하게 재현되

21) 조각 표면 전체를 정성스럽고 균일하게 연마(문지름)하고 있음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는 테마이다. 모체뿐 아니라 페루 고대미술에서 다뤄지는 테마이기도 하다(Justo 2000, 66). 구강성교의 자세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²²⁾, 대부분이 남자는 서있고 여자는 앉은 자세로 재현된다(사진 7). 에로틱 토우가 구강성교나 수음과 같은 성의 다양한 표출을 테마에 포함시킨 점에서 성을 향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수음: 모체의 에로틱 토우에 묘사되는 수음(手淫, 자위)의 현장은 성행위 장면이나 구강성교에 비해 상당히 음울하며 고독하기까지 하다. 수음하는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도 나타나지만 대개가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해골로 나타난다(사진 8). 살아있더라도 움푹 들어간 두 눈은 해골을 연상시킬 정도로 죽음에 임박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라파엘은 시체의 수음 행위를 가리켜 나쁜 습관이 불러온 타락으로 해석하고 있다(Justo 2004, 75). 그러나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라파엘의 해석은 서구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데, 실상 안데스적인 가치관에서 해골이나 죽음은 타락한 자가 도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영혼의 세계와 맞닿는 감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수음하는 과정을 통해 남자는 인간의 성적인 쾌감을 넘어 영적인 감정과 교류하고 있음을 해골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수음을 도와주는 여자가 옆에 있기도 하는데, 이때 여자는 해골이 아닌 살아있는 여자로 표현된다. 라파엘의 해석대로라면 여자는 나쁜 습관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수음을 통해 영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역: 비역(남색, 계간)에 대해선 잉카 시대에 공공연히 행해졌다고 수많은 연대학자들의 기록에 남아있다. 시에사 데 레온(Cieza de León)은 사제관들(복면한 것으로 보아 사제관으로 추측함)과 사회적

22) 그 외에도 남자가 나체로 누워있거나, 의자에 앉아있거나, 다리를 벌리고 비스듬히 앉은 자세도 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의 자세는 다르지만 남자의 두 손은 여자의 머리위에 얹어있고 여자는 남자의 다리를 잡고 있다.

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종교적인 성격으로 동성연애 관계를 가졌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러한 습관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비역 장면을 재현한 금조각은 피사로(Francisco Pizarro)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한다. 엔리코 폴리(Enrico Poli) 박물관에 소장된 비역 장면을 보면, 앞에 있는 남자는 허리를 구부려 자신의 손을 항문 근처에 갖다 대고 뒤에 있는 남자는 앞 남자의 허리에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고 있다. 비역을 다룬 테마는 비교적 적게 발견되고 있고, 레즈비언의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모체 사회에서 남자들 간에 비역 행위가 금기시 되었다는 것이다(Justo 2004, 93). 더군다나 잉카 사회의 경우 비역 행위에 대해선 형벌에 처했고 범죄와 마찬가지로 화형에 처했는데 이러한 금기시 하는 것이 조형예술로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작품 표현에 있어서 사회적 윤리의 제약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한편 이 점에 대해, 겐하드(P.H. Gebhard)는 그들의 성교 장면은 실제로 그들 간에 행해진 것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 이들 지역에서 금기시 되어 온 것을 재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일부는 그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환상적인 섹스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체: 나체를 다룬 테마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 나체의 경우에 풍만한 양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여성나체에서 성기가 노골적으로 크게 과장되게 묘사되는 것 또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사진 9). 그럼에도 모체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단지 성적 대상이나 도구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도하기 그지없는 얼굴 표정과 인체에서 느껴지는 힘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임신과 출산의 경우처럼, 당대에 조각적 경지에 이른 도공들의 제작이었음에서 중요시 여긴 테마였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의 성교: 모체의 에로틱 토우에서 성교는 단순히 인간들만의 특권은 아니었다. 동물끼리의 성교 또한 절대 빠질 수 없는 에로틱

한 테마였다. 아르헨티나의 고고학자, 로돌포 라피노(Rodolfo Raffino)는 동물들의 성교 장면은 우주진화론적인 의식행위와 창조가 어우러져 문학적 형상으로 끌어낸 것이라고 말한다(Huántar 2002, 16). 그러나 동물들의 성교를 의식행위와 연관시킬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동물 성교를 인간적인 성생활과 연관시켜 이해해 볼 수 있다. 대개 동물의 경우(젓소, 두꺼비, 쥐들의 섹스)는 위와 아래로 포개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경우처럼 적나라한 과정이 묘사되지 않고 그저 포개짐으로 나타날 뿐이다. 실제로 동물의 성교 자세가 이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의문이 간다. 즉 에로틱 토우는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동물의 사실적인 성교를 다루고 있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동물 조각 토기보다는 에로틱 토우가 인간의 형상으로 집중되고 있음에서 동물의 성교자세가 인간의 성교자세를 빌려 나타나고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동물의 성교인가에 따라,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기원을 담아낸 인간화한 표현의 발로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밖에도 에로틱 토우의 다양한 테마에는 남성 성기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 성행위로 인한 고통스러운 장면 등이 묘사되고 있다.

Ⅲ. 2. 겹하드에 의한 체위별 분류: '정해진 원칙'이 작용한 상이한 제작 표현

에로틱 토우가 갖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성교의 체위가 다양하게 재현된다는 점과 성교 장면의 리얼한 묘사를 들 수 있다. 고고학자 겹하드(P.H. Gebhard)는 성교의 포즈가 갖는 다양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8가지 체위로 분류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겹하드가 분류한 체위별 분류에 따라 각 체위에 나타난 표현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 성교의 8가지 체위

체위	체위별 동작	해당사진
No.1	여자는 반듯이 누워서 남자의 다리와 팔을 안고 있고, 남자는 여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이루어진 체위이다.	(사진 13,18)
No.2	여자는 옆으로 누워있고 남자는 여자의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다.	*
No.3	여자는 옆으로 누워있고 여자의 뒤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다.	(사진 3)
No.4	여자는 위를 보고 누워있고 남자는 여자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다. 남자의 성기는 여자의 항문에 삽입되는 체위이고, 둘 다 나체 상태이다.	(사진 14)
No.5	여자는 엎드려 누워있고 남자는 여자의 뒤에서 서있다. 여자는 팔을 베개에 의지하고 있다. 둘 다 나체 상태로 행위를 한다.	(사진 15, 19, 20, 21)
No.6	여자는 팔과 다리를 움크려 바닥에 엎드려있고 얼굴은 옆을 돌리고 있다. 남자는 여자의 등 뒤에 올라와서, 손으로는 여자의 어깨를 붙잡고 있고 다리는 여자의 엉덩이를 조이고 있다.	(사진 4, 16)
No.7	앞에 언급한 체위들은 남성이 여성 위에 올라간다면 아니면 남성이 주도하는 체위라면, 체위 No. 7은 여성이 남성 위로 올라가는 자세이다. 남자는 위를 보고 반듯이 누워있고 다리는 쭉 뻗고 있다. 여자는 남자 위에 앉은 자세로 있고 두 팔은 남자의 두 팔을 붙잡고 있다.	(사진 17)
No.8	체위 No.8에서 여자와 남자는 둘 다 마주보고 앉아있다. 남자의 팔은 여자의 어깨에 올려있고 여자의 팔은 남자의 옆구리를 붙잡고 있다.	*



사진 13) 체위 No. 1



사진 14) 체위 No. 4



사진 15) 체위 No. 5



사진 16) 체위 No. 6



사진 17) 체위 No.7



사진 18) 체위 No. 1



사진 19) 체위 No. 5



사진 20) 체위 No. 5



사진21)체위 No.5

8가지로 분류된 체위 중에서, 체위 No.1에 해당하는 사진 13, 18은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누워있는 자세인데, 사진 13과 사진 18에 나타난 표현의 차이점은 명확히 구분된다. 사진 13에서 인체의 비례가 얼굴 중심인데 반해, 사진 18의 경우는 얼굴보다는 하체의 움직임에 주력하고 있다(얼굴과 팔의 표현은 단순하게 처리되었으나 엉덩이 아래의 다리 근육과 발동작은 섬세하게 표현되었음). 이처럼 같은 체위이면서 어떤 도공이 제작했는가에 따라 토우에서 느껴지는 조형성은 아주 다를 수 있다. 체위 No. 5에 해당하는 사진 15, 19, 20을 보더라도 앞에서 지적하는 차이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진 15에서 보면, 얼굴과 상체는 크게 부각되었지만 하체는 밋밋하게 표현되었다. 이에 비해 사진 19의 토우는 인체의 각 부위에 균등하게 부피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볼륨 표현은 이것을 제작한 도공 개인의 조각적 취향으로 간주된다. 또한 사진 15와 19의 남자는 같은 모양의 두상장식을 하고 있지만, 사진 15의 두상장식이 단순하게 부조된데 비해 사진 19의 두상장식은 팽팽한 볼륨 속에서 음각선을 그어 섬세

한 율동미를 만들어냈다. 한편 사진 20은 앞의 두 토우들이 모델링 기법으로 조각된 것과 달리, 타렴기법²³⁾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원통형에 가까운 팔과 다리, 몸통의 입체감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표현은 앞의 두 토우가 표면을 부조기법으로 처리한 것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타렴기법으로 제작된 토우들은 두 남녀의 움직임이 모델링기법으로 제작한 것에 비해 신체의 각 부위가 둥글게 팽창되어 있다.

이렇듯 같은 체위에 속하더라도 표현에서만큼은 아주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체위별로 다른 표현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체위를 가지고 여러 도공들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도공들은 새로운 체위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체위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일구어냈다. 이는 겐하드가 8가지로 분류할 정도로 체위별 분류는 명확한데 비해, 하나의 체위 안에서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여러 예에서 입증된다. 이처럼 에로틱 토우를 제작한 도공들에게는 겐하드의 분류와 같은 체위별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또한 이는 도공들의 제작에서 정해진 원칙처럼 작용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도공들은 어떤 원형적인 형태가 있으면, 그러한 틀 안에서 개성적인 표현이 가능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적 징후²⁴⁾의 차이점은 체위별로 분류한 토우뿐만 아니라 동물 성교, 임신부를 묘사한 토우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정해진 원칙이 에로틱 토우제작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이 연구의 분석은 모체 도자기에 일관적으로 붙어있는 등자형 주구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대개의 모체의 토기에는 조각적이냐, 회화적이냐를 막론하고 등자형 주구가 달려있다. 이 또한 모체의 토기들이 준

23) 타렴성형기법이란, 바닥면으로부터 일종의 가래떡 모양의 점토 띠를 쌓아올리는 성형기법이다.

24) 입체적인 덩어리를 통해 드러나는 면의 표현, 흙의 질감, 인물의 이목구비 묘사방법 등은 정해진 원칙이 있더라도 결코 같아질 수 없는 시각적 징후들이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손의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손안에 흙을 넣고 주무르는 압력 또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곧 표현력과 직결되어 위에서 열거한 면의 표현 등으로 드러난다.

수해야 했던 제작 원칙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기준이나 원칙적인 사항은 에로틱 토우의 체위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IV. 나가는 글

이 논문의 동기가 되었던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포즈와 표정의 관계’는 안데스 조형예술이 갖는 독특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에로틱 토우라는 명칭을 통해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이 갖는 에로틱한 이미지를 기대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안데스의 독특한 조형세계에서 분출된 미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에로틱 토우의 무표정한 표정은 모체의 조각 토기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표정이며, 또한 이러한 표정은 오늘날 페루에서 제작되는 토우에서 발견되는 표정이기도 하다. 또한 리얼한 포즈로 재현되는 성적 묘사는 모체의 조각 토기가 갖는 사실성에 근거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포즈와 표정의 관계는 모체의 조각 토기가 갖는 조형적 표현에서 설명된다.

이 논문에서는 모체문화가 남긴 사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이 방면에서 실질적인 발굴성과를 거둔 고고학자 라파엘의 테마별 분류를 토대로 에로틱 토우가 갖는 다양한 성적 표현을 분석하였고, 겐하드의 체위별 분류에 따라 에로틱 토우의 제작과정에서 빚어진 조형성을 분석했다. 라파엘의 테마별 분류에 의하면, 에로틱토우는 키스, 성행위, 임신과 출산, 구강성교, 수음, 나체, 비역, 남근의 과장된 표현, 성행위로 인한 형벌, 아픈 자의 성교, 동물 성교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테마 분류에서는 모체의 조각 토기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간-동물형보다는 인간 중심의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알아냈으며, 또한 에로틱 토우가 신의 세계를 고려하기보다는 인간의 성생활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해냈다. 한편 겐하드가 분류한 성교의 8가지 체위를 통해, 에로틱 토우의 형태들이 ‘정해진

원칙' 하에서 각자 도공들의 개성적인 표현이 이루어졌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토우에 표현된 덩어리 표현이나 질감에서 개인적인 성향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각 체위별 분류에 적용되는 토우들은 특정 도공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도공들이 이 제작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에로틱 토우의 원형에 해당하는 정해진 형태가 원칙처럼 존재했으며 도공들은 이러한 원칙 하에서 개성적인 표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모체 토기에 일관적으로 붙어 있는 등자형 주구의 예에서 정해진 원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모체의 에로틱 토우 연구는 비록 모체문화의 사회·정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그들이 어떠한 배경과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것들을 제작하고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인간의 성생활을 기록하듯이 재현한 조형예술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인류의 성과 예술을 다룬 또 다른 접근방법의 중요한 예이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classify various themes observed in erotic clay figures of Moche based on Rafael's research, to analyze eight types of postures as classified by Gebhard, to examine expression values emphasized by artisans who made the figures, and ultimately to understand 'formative viewpoints intended by the erotic clay figures of Moche.' According to thematic classification by Rafael, erotic figures are expressed in the forms of kiss, sexual intercourse, pregnancy and childbirth, oral sex, masturbation, nude, sodomy, exaggerated penis, punishment for sexual acts, sick persons' sexual intercourse, animal sex, etc. In the thematic classification, we found that erotic figures are mainly human forms rather than human-animal forms observed frequently in Moche plastic clay earthenware and derived from the analysis that erotic clay figures were focused on human sex life rather

than considering the divine world. On the other hand, through the eight postures of sexual intercourse classified by Gebhard, we found that the forms of the erotic clay figures express each artisan's personality under 'established principles.' As individual inclinations are manifested by mass and texture expressed in the clay figures, it is presumed that clay figures used in the classification of postures were created not by a few specific artisans but by a large number of artisans.

In research on the erotic clay figures of Moche, the background and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y were created are not clear because there is no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ociety and politics of Moche culture, but the figures are understood as 'formative art works representing human sex life as if recording it' and as one of important approaches that people have made to sex and art.

Key Words: ceramic, erotic, Moche, Paul Gebhard, Rafael Larco / 도자기, 에로틱, 모체, 폴 겐하드, 라파엘 라르코.

논문투고일자: 2006. 10. 28

심사완료일자: 2006. 12. 28

게재확정일자: 2007. 02. 13

박물관

Museo Amano

Museo Arqueológico Rafael Larco Herrera

Museo Inca

Museo Nacional de Arqueología, Antropología e Historia

참고문헌

<http://www.angelfire.com/pe/actualidadpsi/sxpru.html>.

Atahualpa Huántar(2002), *Kamasutra de barro*, Lima: ASTRI, S.A.

Castillo, Luis Jaime(2001), “La Civilización Moche”, *Historia de la cultura peruana I*, 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Cristóbal Campana Deldado(1999), *Vicús y la alfarería norandina*, Lima: Editorial Horizonte.

Donnan, Christopher B.(1985), *Arte Moche En Moche*, Lima: J. A. de Lavalle.

Illesca Cook, Guillermo(1990), *La Edad del Cobre del Perú*, Lima: CONCYTEC, Ministerio de la Presidencia, 재인용 Aduni(2001), *Historia del Perú*, Lima: Lumbreras.

Justo Cáceres Macedo(2000), *La sexualidad en la antigua sociedad Moche del Perú*, Lima: Peru.

Larco Hoyle, Rafael(1966), *Checán, ensayo sobre las representaciones eróticas del Perú Precolombino*, Lima: Ed. NAGEL.

Lumbreras, Luis G.(2000), *Los Señoríos del Norte Fértil*, Lima: Lluvia Editorial.

Montañés, Emma Sánchez(1986), *Arte indígena sudamericano*, Madrid: ALHAMBRA, S.A.

Stierlin, Henri(1984), *Art of the Incas*,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